

서 보사부 장관, 가정의 해 기념사업 적극 추진

보육사업에 중점, 노인복지 시책도 확충

여협 주최 정책간담회서 밝혀



간담회 도중 여성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서상목 보사부장관(그 옆은 이연숙 여협 회장).

서상목 보사부 장관은 지난 2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 이하 여협)가 주최한 '보사부 장관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보사부의 여성관련 중점 사업에 관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위해 서 장관은 세계가정의 해 기념사업을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모자보건 정책, 요보호 여성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등 보사부 내의 6개 여성관련 정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요약한 7매 정도의 <여성관련 보사정책>을 별도로 준비해 오는 등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서 장관은 올 세계 가정의

해를 계기로 가정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제한 뒤 관련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지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61개 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중심이 되는 세미나, 연구사업, 가족단위행사, 캠페인, 가족교실 등

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협이 새 회장단을 구성한 뒤 마련한 첫번째 공식행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 이번 정책 간담회는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아침 7시 30분부터 두시간 남짓 진행됐는데 여협 임원 및 위원, 회원단체 임원, 여성관련 정부기관 및 각당 여성국 위원

**서 장관은
민·관으로 구성된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61개 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중심이 되는
세미나, 연구사업,
가족단위행사, 캠페인,
가족교실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서 장관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보사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난 91년부터 보사부로 일원화되면서 90년 1천9백개소 이던 보육시설이 지난해 5천 5백개소로 증가됐을 정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이날 서 장관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보사부는 정부와 민간이 보육시설에 공동참여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97년까지 보육시설이 필요한 1백만 아동에게 혜택이 밝히고 있다.

식품위생·생수대책 언급

서 장관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또 현행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무의탁 노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을 앞으로는 2백45만명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사업 등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확충 해 나갈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준비된 자료와는 별도로 현재 국민들의 식품위생과 생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식품국과 위생국의 긴밀한 협조아래 식품위생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불량 생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하수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각계에서 참석한 여성들의 질의와 서 장관의 응답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병 환자를 위한 수용시설 설립,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설립,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예산, 보육비 국가 부담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다만 보사부내 여성공무원 실태 및 산하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에 대해 질의한 정영숙(한국퇴역군인회) 회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사부내 여성은 1천8백62명(47.4%)이고 5급 이상 관리직이 84명(13.8%)이고 보사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수는 전체 12.8%로 적은 편"이라며 정확한 통계 수치까지 밝히는 성의를 보이기도.